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6년 6월 발행 (제 74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도둑의 집' 예레미야
 - ◎간증 '일요일 예배에서 가르쳐 주신 것 (2)' E3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권두 메시지>

'도둑의 집'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과 도둑의 집>

이번에는 '도둑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드리고자합니다. 종말의 날의 교회는 "도둑의 집"이 될, 그리고 이를 위해 붕괴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스가랴 5 장 1 절 ~ 11 절 텍스트에서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에 보고 갑시다.

스가랴 5:1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5:2 그가 내게 물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이십 규빗이요 광이 십 규빗이니라

여기에서 갑자기처럼 날아 다니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다음 말씀에서,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4 ○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두루마리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書寫記號 것입니다. 즉 두루마리는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스가랴 5: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두루마리 성경이있는 일면, 즉 저주라는면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인 성경은 단순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그치지 않고 더욱 저주라는 측면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훔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사람에게 벌을 가지고 있다는면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힘있는 존재입니다.

스가랴 5:4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형벌에 대해 더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도둑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끊어 멸이 그려져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실제 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도둑의 집에 관해서도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비유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비유하여 말하는 것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이 구절의 비유의 의미도 생각해보고자합니다.

시편 78:2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도둑에 관한 비유>

도용이나 도둑에 관한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까?

예레미야 23:25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23:26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3:27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3:2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23:2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23:3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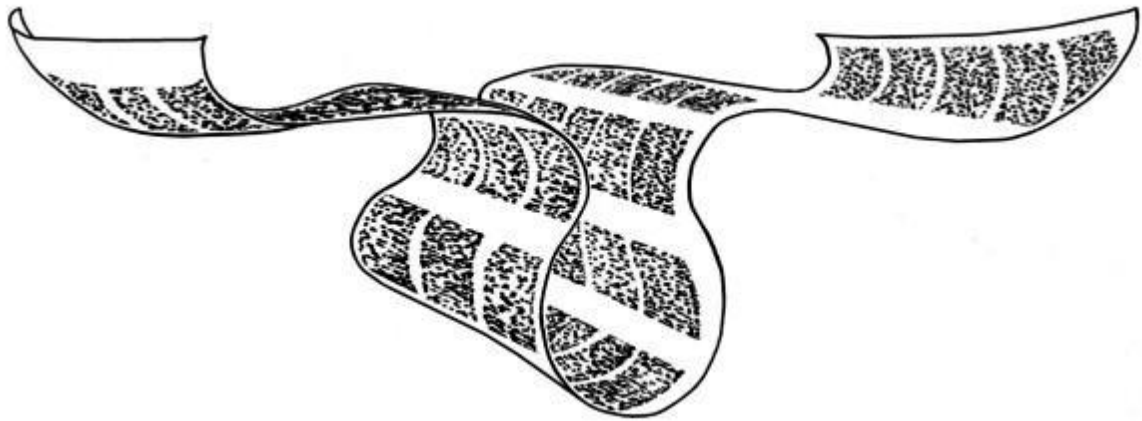
여기에는 "각각 내 말을 훔치는 예언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봉사자에게 하나님이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훔칠 수에 관한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일꾼에 관한 사항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일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라는 것은 예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주 예수 때에도 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 인 바리새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격한 질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23:13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날고있는 두루마리

당시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고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없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고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도둑의 동지가 되어 버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동지로 한 사람들에 대해 큰 분노를

점화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12 ○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21:13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도둑)의 등지로했다"고 질타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비난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이 장면은 돈을 훔치는 도둑도 도둑도 누구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와 양을 파는 자, 환전 사람은 등장하지만 그들은 별도로 도둑을 생업으로하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은행 강도도 스리도 도둑을하는 사람도 여기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누구를 도둑이라고 비난하고있는 것? 그래서 여기 질책되는 것은 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도둑이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붕괴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도둑의 등지가되어 버린 때문에 하느님의 성전은 붕괴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주님의 예언대로 AD7 년에 예루사렘 신궁이 붕괴해 버렸습니다. 로마의 예루살렘 공격에서 집 돌이 무너져 붕괴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성전은 붕괴 해 버린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결과, 모두의 스가랴의 말씀, "그것은 도둑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의 한가운데에 그쳐 그 집을 보와 돌과 함께 끊어떨하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가르침을 펼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집은 강도 (도둑)의 등지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위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하고이 공은 "보와 돌과 함께 끊어 멸망" 해버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신약의 하나님의 집은 붕괴되다>

그런데 위 마태 24 장에 예언은 이중의 예언입니다. 이 성전의 붕괴의 예언은 종말의 날에 다시

성취합니다. 다음 말씀은 그 날을 예언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데사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붕괴하는 날이 그려져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일을 봅시다.

텍스트는 그날 먼저 배교가 일어나 적혀 있습니다. 배교는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배교의 결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인 사도,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필요없는 바위로 교회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퉁잇돌인 그리스도의 가르침마저 맑게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추방 쫓아 배도의 교회는 마지막에는 불법의 사람 곧 적 그리스도를 교회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됩니다. 그것은 **"그 위에 자신을 높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 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흠치는 때문에 붕괴되다>

요한 계시록에 따르면한다면, 종말의 날의 교회는 짐승의 나라의 횡포 속에서 붕괴하게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에 그런 붕괴가 일어날까요? 허용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서두 스가랴의 텍스트 거리, 교회가 도둑의 집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의 집에 들어가 ... 그 집의 한가운데에 그쳐 그 집을 보와 돌과 함께 끊어 멸"**하는 것과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 신약의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그 기초석 인 사도, 선지자, 그리스도의 가르침 마저 맑게하고 붕괴하는 것입니다.

<시누아루의 신전>

그런데, 모두의 스가랴의 텍스트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스가랴 5:5 ○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아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5:6 내가 물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보리 관한 마스이며, 그것은 생명의 빵 말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수기 28:5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빵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에 관한 죄에 대해 말씀하고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5:7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5:8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 속에 여자가 갇혀있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의 예이며, 말씀에 대해 죄를 교회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스가랴 5:9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황새"는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더러운 조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13 ○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응과

11:19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새는 영혼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 교회는 말씀에 관한 죄를 범한 게다가 악령을 내릴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스가랴 5:10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5:11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 여자 교회의 성전이있는 땅은 시누아루인 것이 적혀 있습니다. 시누아루은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음의 설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삼 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시누아루"는 다름 아닌 바빌론의 땅입니다. 바빌론의 신전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에서 쓰는 여자는 곧 계시록에 등장하는 다음의 음녀 바벨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8:2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이 곳에서는 바빌론, 즉 배교의 교회가 쓰러 질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쓰러 질 것인가? 그 이유는 방금 전부터 말하고 있도록 말씀을 흠치는 때문에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텍스트가 말하는 것의 의미, 즉 종말의 음녀 바벨론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음녀 바벨론, 즉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는 말씀을 흠치는 교회이며, 또한 말씀에 죄를 반입 교회이며, 또한 황새로 표현되어 있듯이, 더러운 귀신을 숭배하는 교회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흠치는 교리가 횡행하고있다>

그런 이유로, 바빌론,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을 경배 하나님의 말씀을 흠치는 때문에 종말의 날에 전 세계의 교회가 붕괴하는 날이 도래 할 이렇게 예언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하면 좋은 것일까요?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점화 모든 도둑의 가르침을 버리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흠친 가르침이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흠치고 비틀어 환난은 만나지 않으려는 환난 전 휴거 설, 두 단계 휴거 설 등입니다. 이 도둑, 도둑질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에 쌓여있는 이 일을 알아 봅시다.



에바에 앉은 여자

‘일요일 예배에서 가르쳐 주신 것 (2)’ E3

이번에는 2013년 8월에 일요일 예배에서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되어 있던 것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20 편입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0:1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리 있도록" 곳은 KJV 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당신을 지키도록."** 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명되면 필요에 따라 도움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것을 기대하고 믿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의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효과가 있으며, 보호 수 있습니다.

20:2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하고 있다면, 이상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3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밋사빱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제물을 받아받을 수 있습니다. "곡식 제물"은 "메시지"를 "제사"는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다 예물을 가지고가는 편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봉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물을 가지고 가서, 받아주지 않는 예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한편,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라고했습니다.

즉, 가인 형 기독교인과 아벨 형의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만, 꼭 아벨 형을 목표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가인 형이었다고해도 제대로 걸어 가면서 아벨 형으로 변화 해갑니다. 만약 가인 형이라면 어디 선가 변화되어야 안됩니다.

그리고 봉사는 개인의 행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걸음이 올바른 때를 받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명심 수 있도록되어 은혜에 들어 가고자합니다. 하나님을 명심 수없는 봉사가 있지만, 그러나 비관적이되지 않고 어딘가로 변화 해 가도록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20:4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얹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소원대로하십시오 있도록" 하는 곳은 KJV 역은 "주님 께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 용서해 주 십니다 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것은 ...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에 의해 어떤 때는 들으시고 어떤 때는 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위한 것이라면 들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이 주로 맞는다면 큰일도 들려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마음을 따라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20:5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20:6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20:7 ○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20:8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기름 부음을받은 자"

는 일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받은 그리스도인의 수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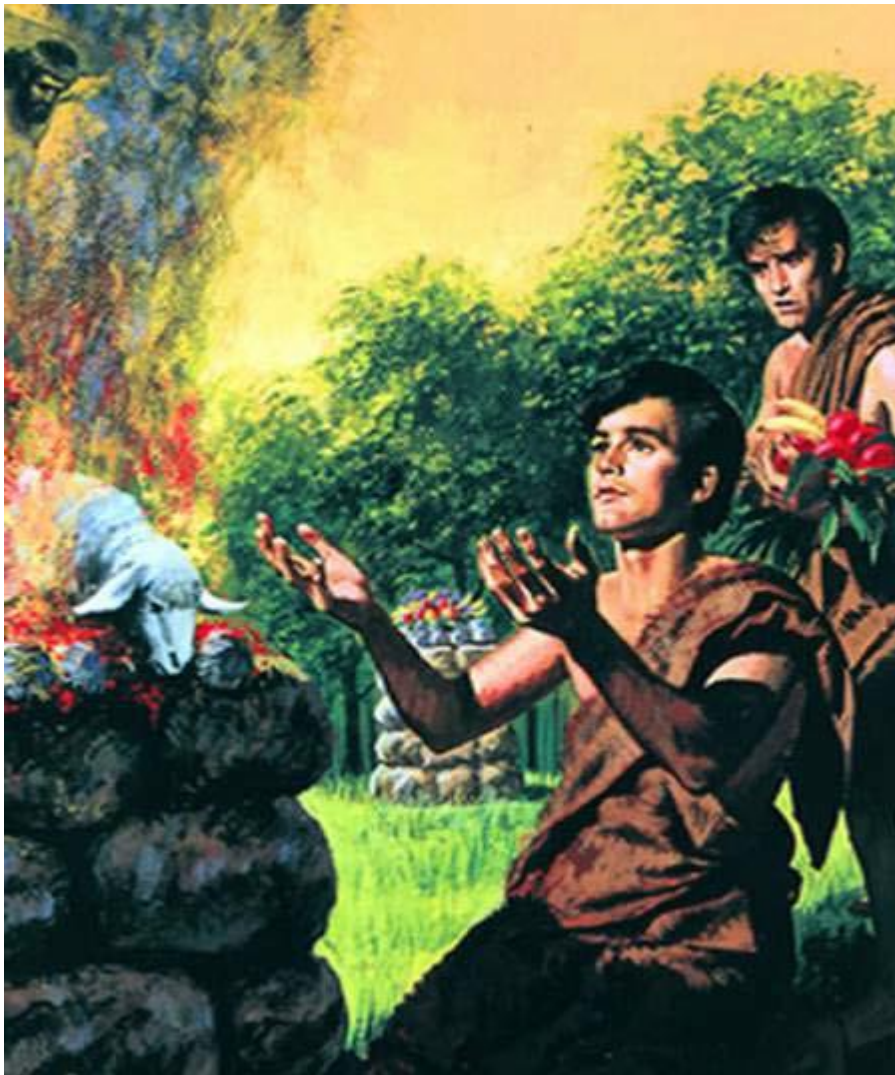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름이 머물러 있는지?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이 남아 있도록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기름 부음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할 때 주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부여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상한 해결을 주 십니다. 그래서 문제 나 어려움이 있어도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것을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런 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것을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 중에서 최선의 것을 바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생 아벨